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3부 「하나님 말씀의 본질」 머리말과 8장. 본문에 116·117쪽 표시가 있고, 9장은 119쪽에서 시작한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3부를 열면서 먼저 방법부터 밝힌다. 현대 신학자들의 논의는 우리가 처한 '상황'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성경 속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린다. 성경으로 성경을 다루면 순환논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모든 최고 권위는 그런 식으로 변호될 수밖에 없다고 답한다. 이어 8장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문에서 출발한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 구절로 보여 준다. 그다음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은 본래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히 소통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하나는 소통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피조물에게 자유롭게 건네신 소통 전체다.

📜 절별 정리

📜 1. 3부 머리말 ① 결정적인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2부에서 프레임은 대표적인 현대 신학자들이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요약하고 평가했다. 그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신학적 '상황'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교리를 다시 생각할 때 마지막 결정권은 사람들의 논의가 아니라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목소리에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관점주의를 방법으로 쓴다. 현대 신학 논의는 '상황적 관점'에,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 하는 증언은 '규범적 관점'에 놓는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적당한 지점을 고르는 것이다. 프레임은 과거와 현재의 사상 일부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 자체를 깊이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1. 현대 신학의 논의 = 상황적 관점
2. 성경의 자기 증언 = 규범적 관점
3. 최종 판단은 성경 속 하나님의 목소리
4. 견해 사이 '중간 고르기' 방식은 거절
5. 적용하는 법도 성경이 보여 준다

📜 2. 3부 머리말 ② "그건 순환논리 아닌가?"에 대한 답

프레임은 자기 방법이 순환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먼저 인정한다. 그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고, 66권 전체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 한 가지 견해를 낸다고 미리 가정한다. 결론의 일부를 출발점에 깔고 들어가는 셈이다. 그는 이 순환성을 이 책 1장과 4장, 부록 E, 그리고 다른 저서(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Apologetics to the Glory of God)에서 이미 변호했다고 밝힌다. 핵심 논리는 이렇다. 어떤 사고 체계든 자기의 최고 원리와 최고 권위를 변호할 때는 그 권위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합리주의자는 이성을 변호할 때 이성에 호소하고, 무슬림은 결국 꾸란에 호소한다(번역본의 '쿰란'은 '꾸란'의 오기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최고 권위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성경의 권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이 자기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경이 자기 권위를 부정한다면 누구도 그 권위를 믿을 이유가 없다. 반대로 성경이 자기 권위를 확증하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준다면, 모든 사람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1. 하나님이 저자라는 전제에서 출발
2. 최고 권위의 변호는 늘 순환적이다
3. 이성은 이성으로, 꾸란은 꾸란으로 변호

5. 성경이 충분한 근거를 주면 받아들여야

📜 3. 대요리문답 3문 —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전부'인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문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묻는다. 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답한다. 프레임은 이 답이 옳다고 분명히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 권위를 가진다. 그는 대요리문답이 정말 말하려는 핵심을 이렇게 본다. 성경은 오늘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다. 다만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유일한' 말씀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될 수 있다. 근거는 성경 안에 있다. 바울은 영감을 받은 사도였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두 통 있다. 선지자와 사도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다. 하나님은 천사와 자연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글로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1.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최고 권위
2. 대요리문답의 핵심은 성경의 충족성
3. 정경에 없는 바울의 편지가 있다
4. 하나님은 천사와 자연에도 말씀하신다
5.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 **고린도전서 5:9**
>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이전 편지가 있었다는 증거. 이 편지는 정경에 없다
>
>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 **고린도후서 2:4**
> 바울이 눈물로 쓴 또 다른 편지. 프레임은 이것도 정경에 없는 편지로 본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시편 103:20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신다. 기록되지 않은 말씀의 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47:15-18

하나님이 자연에 명령을 보내 눈·얼음·바람을 다스리신다

15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17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시편 148:8

불·우박·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창세기 1:3, 6, 9

“하나님이 이르시되” —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창세기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시편 33:6, 9

하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시편 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9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요한복음 1:1, 14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고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4. 넓은 말씀이 성경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프레임은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보다 넓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발화) 또는 그 말들의 묶음이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담고 있지는 않다. 그는 이 사실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말씀의 넓은 범위를 인정한다고 기록된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성경과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면 성경의 중요성이 더 또렷하고 강하게 보인다. 시편 19편이 그 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노래하고(1-6절), 이어서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을 노래한다(7절). 이렇게 이어 놓음으로써 기록된 말씀이 자연을 다스리는 말씀만큼 힘 있고 믿을 만하다고 보여 준다. 시편 147:15-20에도 같은 생각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할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소통 전체다. 과거에 하신 말씀, 지금 하시는 말씀, 앞으로 하실 말씀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실은 그보다 더 크다.

1. 말씀 > 성경, 그러나 성경 = 말씀
2. 성경은 하나님의 발화(들)이다

4. 시편 19편: 기록된 말씀 = 자연 속 말씀의 힘

5. 정의 1단계: 하나님 소통의 총체

시편 19:1-6

하늘과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19: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 기록된 말씀이 자연 속 말씀과 나란히 놓인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47:15-20

자연에 내리시는 명령(15-18절)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규례(19-20절)를 함께 둔다

15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17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성경 이상의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 5. 말씀하시는 하나님 — 삼위일체 안의 영원한 소통

프레임은 “그 이상”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7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히 사랑과 뜻을 주고받으신다.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성부에게, 성부와 성자는 성령에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말씀하신다. 이 소통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속성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는 2장에서 말한 '하나님은 절대 인격체'라는 주장과 이어진다. 소통은 인격체에게만 있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은 성경의 종교에만 있는 생각이다. 따라서 삼위일체 안의 영원한 소통은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속성이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지점에서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말'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서 '말씀'이 제2위격(성자)의 이름이기도 하다면 모순 아닌가? 프레임은 모순이 아니라고 답한다. '아버지 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성부'는 제1위격의 이름이고, '영'도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제3위격의 이름인 것과 같다.

1.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
2. 삼위 사이에 영원한 소통이 있다
3. 소통은 하나님 본성의 필수 속성
4. 소통은 인격의 표지 → 절대 인격체
5. '말씀'은 속성이자 성자의 이름(모순 아님)

> **요한복음 1:1-14**
>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제2위격을 가리킨다는 근거
>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 6.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그리고 두 가지 정의

삼위 안의 소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속하는 필연적인 것이다. 반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와 자유로운 결정에서 나온다. 이 소통이 하나님 말씀의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이고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프레임은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는 그 자체로 순전히 신적인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된 매체를 거쳐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다. 이 주제는 12장 이후에 다룬다. 성경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피조된 통로다. 각주에 따르면, 이 점은 도예베르트를 따르는 이들과 프레임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부록 D).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소통하시는 분으로 이해된 하나님 자신. 둘째, 하나님이 피조물과 자유롭게 나누시는 소통의 총체. 이 책에서는 주로 둘째 정의를 쓰지만, 첫째 정의와 두 정의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인다. 마지막 각주에서는 헬라어 '로고스'를 다룬다. 로고스는 사고·이성·설명·담화·가르침 등 뜻이 넓다. 헤라클레이토스나 필론 같은 고대 저자들은 이 말로 일종의 우주적 합리성의 원리를 가리켰다. 프레임은 이것을 '최고 실재는 절대 인격의 소통자'라는 진리를 희미하게 기억한 흔적으로 본다.

1. 삼위 안의 소통은 필연, 피조물에게는 은혜
2. 신적인 말씀 ≠ 피조된 매체를 거친 말씀
3. 자연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통로
4. 정의 ① 소통하시는 하나님 자신
5. 정의 ② 피조물과의 자유로운 소통 전체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자신과 자기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

영감
성령이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나 쓰게 하신 일.

정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성경 66권의 목록.

충족성
성경이 우리 믿음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담고 있다는 성질.

발화
실제로 입 밖에 낸 말 한 마디 한 마디. 프레임은 성경을 하나님의 발화(들)라고 부른다.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루는 성질(사랑, 거룩, 그리고 이 장에서는 '말씀하심').

위격
삼위일체에서 성부·성자·성령 각각을 부르는 말. 한 하나님 안의 세 '인격'.

절대 인격체
하나님은 비인격적 힘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최고의 인격이라는 프레임의 표현.

관점주의(규범적·상황적 관점)
같은 주제를 하나님의 규범(성경),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 자신의 내면이라는 세 각도에서 함께 보는 프레임의 방법. 이 장에서는 앞의 둘이 쓰인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결코 섞이지 않는다는 성경의 기본 원칙.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 권위이며, 오늘 삶 전체에 충분한 계시다.
-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보다 넓다. 기록되지 않은 사도·선지자·예수님의 말씀, 천사와 자연에 하신 말씀, 창조의 말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히 소통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소통은 하나님의 필수 속성이다.
-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① 소통하시는 하나님 자신 ② 피조물과의 자유로운 소통 전체. 이 책은 주로 ②를 다룬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편 · 말씀하시는 하나님 ·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